



# 문화예술 속

## 교량의 미학

문학 (시, 수필, 소설) · 미술 (회화, 조소, 공예, 영상) · 공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문지영 | 작가  
외고, 예술학학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서로는 ■내려놓기 (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공저,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3쇄+2판3쇄, 2016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 (2020년 공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생각을 말해보(2015년 공저)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토목기술사의 비밀노트(2024년, 202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예정), ■토목, 인생, 무엇이 궁금해?(2023년 초판, 2023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를 했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2023년 봄호부터 시작한 본 도로교통저널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연재에 이어, ■2024년 3월부터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속 토목구조물의 미학>을 매달 기고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산책>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다.

# 제8편 곡교

2024년 겨울호

중국의 정원(庭園)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곡교(曲橋, 曲折橋)가 다수 놓여 있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교량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꺾인 곡교를 유유히 거닐다 보면, 곳곳에 숨겨진 중국 정원의 놀라운 비경(秘境)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에는 옛 선조들의 삶에 대한 지혜와 자세, 신앙 등이 담겨있다. 곡교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갔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자연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향긋한 풀 내음과 함께 온몸에 전율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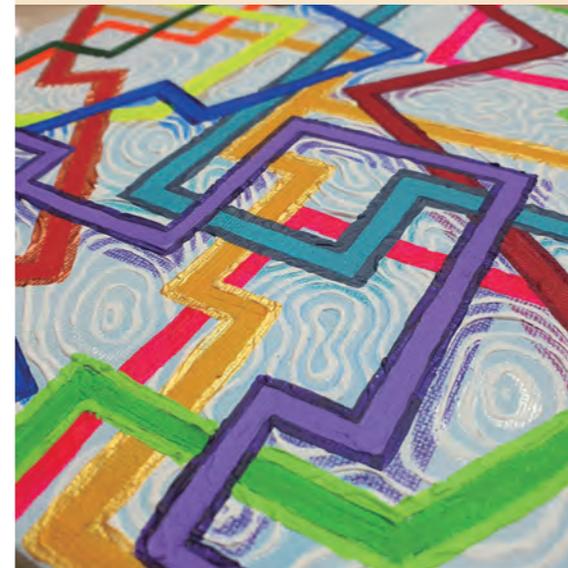


[그림 1] 사자림(獅子林) 곡교(曲橋)와 주변경관, 2010년 ©문지영 촬영

앞만 보고 재빠르게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중국 고정원(古庭園)의 곡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듯하다. 2010년 여름, 필자가 직접 답사했던 사자림(獅子林, Lion Grove Garden) · 졸정원(拙政園, Humble Administrator's Garden) · 유원(留園, Lingerin Garden)에서 곡교를 산책하던 추억을 더듬으며, 곡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상상해 본다. 참고로 중국 소주(수저우, 苏州, Su Zhou)의 4대(代) 정원으로 '사자림(獅子林) · 졸정원(拙政園) · 유원(留園) · 창랑정(滄浪亭)'이 손꼽힌다.



[그림 2] 「굽이진 인생길, 지그재그길 곡교」, ©문지영 작품



[그림 3] 「굽이진 인생길, 지그재그길 곡교」  
\_부분 1 ©문지영 작품

## 굽이굽이 꺾인 길을 따라 거닐다 보면

중국 정원의 묘미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合一)에 있다. 이는 동양의 정원에서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합일을 추구한 한국의 정원 혹은 인공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을 유도한 일본의 정원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정원은 한국과 일본의 특징을 교묘하게 섞어 놓았다. 매우 인공적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자연의 상태 그대로처럼) 연출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곡교(曲橋, 曲折橋, Zigzag Bridge)'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그림1). 중국 정원의 곡교 형태 자체는 인공성(人工性)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굽이굽이 꺾인 각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자연 그 자체이거나, 자연 속에 아름답게 녹아있는 인공물과의 조화가 대부분이다.

곡교를 따라 거니는 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곡교 주변으로 물이 차오르면 교량 위를 지나는 사람은 물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는데, 천천히 이동하는 가운데 흥취가 극에 달한다. 신선이 된 느낌이랄까? 중국 정원의 곡교에는 첨완(詹園, Zhan Garden, Admirable-Looking Garden)의 곡교처럼 교량의 상부에 난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걸음걸이를 조심해야 물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유념하시길.

### 머무름이 있는 곳, 그곳에는 대화와 심이 있다

중국 정원의 곡교는 대부분 수경(水景) 위에 놓였다. 물 속에는 어류(잉어 외)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량 위에서 지나가기(통과)를 잠시 잊고 수경(水景)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눈다. 어린이 포함 사람들이 교량 위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하더라.

중국 정원의 지당(池塘, 연못) 내 곡교는 정자(亭子, Pavilion)와 이어진 경우가 많다. 굽이진 동선의 곡교를 따라 지당 한 가운데로 나아가면,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쉴 수 있는 좌석과 지붕이 갖추어진 정자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사방으로 트여 있으며, 다각형으로 지어진 정자 안에서는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1). 곡교와 인접한 건축물(Pavilion)의 상부(2층에서의 경관이 훌륭하다)에서도 중국의 전통차(茶)를 즐기며 곡교와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 4] 유원(留園)의 곡교(曲橋) 위에서의 머무름, 2010년 (©문지영 촬영)



### 가던 길 멈춰 서서

- 리엄 헨리 데이비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 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맴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그림 5] 사악한 기운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그재그 형태의 졸정원(拙政園) 곡교(曲橋), 2010년 (©문지영 촬영)

### 사악한 기운아, 따라오지 마라

정원의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중국의 선조들이 곡교를 놓은 두 가지 큰 이유에는 '다양한 시각 체험'과 '사악한 기운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옛 중국인들은 사악한 기운이 직선으로 된 길은 잘 따라오지만 굽어 있는 길은 쉽게 따라오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부러 동선을 여러 번 꺾었다고 한다(그림5). '뱀'과 '사악한 기운'이 닳은꼴인가? 풍수(風水, Feng Shui)의 원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지그재그 형태의 곡교는 정원의 중요한 입구 수로(水路), 정원 내에서 공간의 전이가 일어나는 입구 수경(水景)(월량문(月亮門, Moon Gate) 앞 곡교가 대표적이다), 정원 내 지당(池塘) 위에 설치하여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굽이굽이 꺾인 길은 다리에서뿐만 아니라 정원 내 회랑(回廊)과 산책로 전반에 이르는 동선(動線)에서도 반복되었는데(그림6), 정원의 곳곳을 산책하며 즐기는 시선의 다양한 체험과 정원 구석구석을 거니는 가운데 사악한 기운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여러 장소에서 읽혔다.



[그림 6] 지그재그 형태의 졸정원(拙政園) 회랑(回廊) 난간 벽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2010년 (©문지영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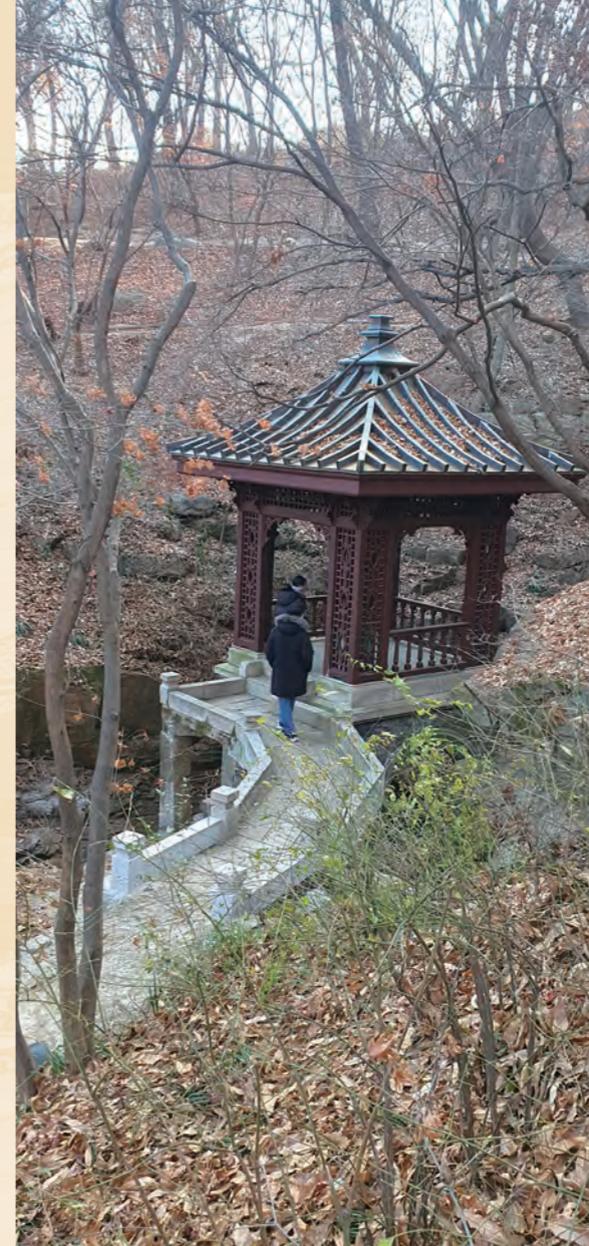
**운치 있는 곡교,  
그 속으로 한번 빠져 볼까요?**

중국 정원의 곡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 기둥과 지붕이 갖추어진 누교(누다리) 형태의 우아한 모습이라거나, 지붕 위에 식재된 덩굴식물이 흐드러지게 핀 꽃이 다리의 운치를 더해준다(그림7). 수경에 반사된 다리와 주변의 풍경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이다. 마치 신선이 된 듯한 기분으로 이곳저곳을 산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

이렇듯 굽이굽이 꺾인 길, 중국 정원의 곡교는 빨리 지나갈 수 없도록 디자인되었다. 천천히 정원을 둘러보며 즐기는 삶의 여유, 이것이 중국의 선조가 이야기하고자 한 인생의 지혜와 자세가 아닐까?



[그림 7] 유원(留園)의 운치 있는 곡교(曲橋),  
蓬萊島橋(Penglai Islet Bridge)  
(출처: \* Ruan Yishan(2010), Classical Private Gardens in the Yangtze River Delta, China: Yilin Publishing House, 2010; p.113)



[그림 10, 그림 11] 석파정 석교(石坡亭 石橋), 2024년 (©문지영 촬영)



[그림 8] "굽이진 인생길, 지그재그길 곡교" (©문지영 작품)



[그림 9] "굽이진 인생길, 지그재그길 곡교" \_ 부분 2 (©문지영 작품)

중국풍의 교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교량 '석파정 석교(石坡亭 石橋, 석파정 다리)'는 짧은 길이로 축조되었으며, 꺾인 방향이 일정하고, 사방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였다. 중국의 곡교에 비하면 매우 아담하지만(그림10, 그림11), 360도로 자연 속에 담긴 정자(亭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체험은 또 다른 매력이다. 사뻐히 소폭으로 정자 속으로 진입해 보면 무릉도원, 이상세계가 바로 이곳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 곡교는 굽이굽이 굽어진 우리네 인생길을 닮았다

인생길은 광복의 고속도로가 아니다. 굽이진 인생길이라고도 말하지 않던가?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외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기까지 한다. 굽이굽이 구부러진, 꺾이고 가끔은 부러지기도 하는 길이 우리네 삶의 모습을 닮았다. 길이 일직선으로 나 가까운 미래까지 보이는 날이 있나 하면, 날씨 탓에 코 앞의 상황도 인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지점에서는 약간의 당황스러움도 맛보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희망적이기도 하니, 평소에 본인의 에너지를 20퍼센트는 비워놓고 남은 20퍼센트의 공간에서 삶의 변화에 대한 유동성과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길의 형태와 방향이 변하면 시선도 전환되고 보이는 풍경도 새롭게 다가온다. 같은 길이라도 어느 지점으로 걸어가느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고, 삶의 전환 지점에 선 당신이라면, 우선 숨 고르기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풍경 한 번 지긋이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과거의 길, 내가 지나온 그 길, 과거의 나까지 집착하지 않는다.

### 구부러진 길

- 이준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인간은 생명체이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세포분열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지점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게 몸이며 환경이고, 모든 건 '과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디로든 나아가는(진행되는) 여정(旅程)이다. 한 걸음씩, 한 치 앞의 변화를 알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생길은 구불구불하다. 저 모퉁이를 돌면, 저기 굽이진 길을 돌면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느긋하게 여유 있게 조금은 천천히 근육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고, 그리고 삶의 무게까지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갖는 편이 지혜로울지 모르겠다. 삶이라는 길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연스럽게 그 위를 걸어보자. 어쩌다 보니 가게 되는 길이기도 하니 말이다.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라면 코너마다 맞닥뜨리는 새로움을 즐기면서 모험가, 탐험가의 도전정신으로 전진해도 나쁘지는 않겠고, 다만 그 어떤 순간에서이든지 무너지지 말고 생각의 관점과 눈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여유는 꼭 같이 가져가길 바란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를 때는 특히나.

지그재그로 나 있는 곡교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속도를 내다가는 멈춰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리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세 인생길, 본인만의 적당한 시간과 속도로 산책하듯이, 자신만의 보폭으로 편하게 걷는 마음가짐도 권해본다. 심호흡과 명상 등으로 건강한 마음 챙김까지 겸하면서 스트레스 줄이기도 시도해 보고.

저 모퉁이를 지나면 상상하지도 못한 희망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줄지도 모르겠다. 그게 인생이니까.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소감 중에서

“소설을 막상 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길을 잃기도 하고, 모퉁이를 돌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설 때 스스로 놀라게도 되지만, 먼 길을 우회해 마침내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기쁨은 큼니다.”

